

#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5.102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사랑

## Editorial

### 줄탁동시(啐啄同時) 건축(建築)을 꿈꾸며

어미 닭이 알을 품은 지 스무하루가 되면 알 속의 새끼는 알 껍질을 툭툭 쪼이는데 이것을 '줄(啐)'이라 한다. 이 소리에 귀를 세우고 이를 기다려온 어미 닭은 이에 호응하여 그 부위를 밖에서 탁탁 쪼아주는데 이것을 '탁(啄)'이라 한다. 줄과 탁은 동시가 아니면 병아리는 없다. 이렇게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달걀 속의 병아리가 빨리 세상을 보려 스스로 껍질을 쪼고 나오면 건강한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곧 죽게 된다. 반대로, 어미 닭이 병아리를 빨리 보고 싶어 껍질을 쪼게 되어도 병아리는 건강하지 못해 죽게 된다. 참으로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다. 자본주의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달걀과 병아리로 태어나 닭으로 까지 성장하면 계란과 닭의 차이는 매우 크다.

바르셀로나에 학회 논문발표가 있어 방문하는 중에 가우디의 많은 작품을 볼 기회가 있었다. 아직도 건설이 진행 중인 파미리아 성당, 전원주택단지, 연상하게 하는 구엘공원과 건축가의 상상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옹한 구엘의 저택과 가우디의 작품을 좋아하던 페드로 밀라가 의뢰한 공동주택인 카사밀라 등 참으로 놀랍고 의미 있는 건축기행이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시대를 넘어서고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위대한 건축물은 건축가를 인정하는 구엘이라는 훌륭한 건축주를 토대로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건축사들의 줄탁동시라 생각되었다.

국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설계심의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의 형성 과정 등을 보면서 왜 우리는 줄탁동시의 건축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건축주들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무한한 신뢰를 보였는지, 건축사들은 건축주들을 설득하여 건축물을 통한 건축문화 형성에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호협력과 협조에 의한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하여 상대방으로부터의 화답을 이끌어내고 어느 부위를 깨뜨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경청하며 적절한 타이밍으로 서로의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은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건축주들의 무리한 용적을 올리기와 사업성에 건축사들의 끌려오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건축의 시대를 넘어선 건축문화는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건설이라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건축도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건축사를 인정하는 구엘이라는 훌륭한 건축주를 만나 세계적인 가우디의 작품세계가 세상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건축주를 기다려야 하는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나 남과 북의 줄탁동시로 판문점 회담이 뉴스의 초점이 되는 감동의 역사드라마를 연출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듯이 기다림의 미학보다는 내 안의 들보는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듯이 건축의 기획과 계획의 무한한 창의의 세계를 여는 건축사분들의 우선적인 활약과 역할을 우선 기대하여 본다.

고성석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장들, 공동발전방안 모색 위한 합동간담회 가져  
지난 4월 26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협동조합 추진 방향 협의 등

광주건축사회 신임회장단, 남구청·광산구 부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강현구 회장 및 부회장 등, 구청 방문해 건축 행정 관련 개선사항 전달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자문위원회의 개최하고 의견청취  
지난 4월 16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진행,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문받아

전남건축사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적극 추진 나서  
지난 4월 20일 전남대에서 간담회 개최하고 하반기 교육 시행 목표로 추진 논의

전남 순천시, 청년 건축학도들이 그려낸 신청사 11개 작품 선정  
지난 4월 27일 전국 대학생 건축설계 공모 시상식 개최

## Editorial

### 줄탁동시(啐啄同時) 건축(建築)을 꿈꾸며

전남 화순군,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 실시  
지난 4월 26일부터 관내 10여 명 건축사가 12개 면 순회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 김제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화재 취약계층의 주거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소화기 등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 터와 주변부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  
약 151만6000㎡ 설정,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미일치 건축물대장 정비 나서  
건축부서와 지적부서 협업 통해 건축물대장 169건 지번 정비

### '가칭' 행복중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광주건축사회 주최, 전남일보사 후원, '제2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4월 12일, 서구 치평동 전천후게이트볼구장에서... 300명 참석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응모접수 시작  
준공건축물 6월 1일까지 인터넷(kaa.kira.or.kr)을 통해 참가신청 접수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사진으로 미리 보는 건축문화 사랑





**BOM Cafebrary**

박성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송정  
 광주 북구 무등로 182-1, 4층  
 Tel. 082-528-8737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694-7번지 / 대지면적: 280.00㎡ / 건축면적: 139.89㎡ / 연면적: 304.24㎡ / 건폐율: 49.96%  
 용적률: 108.66%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규모: 지상 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장들,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가져**

지난 4월 26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협동조합 추진 방향 협의 등



대한건축사협회 호남권 3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26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북

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호남권 건축사들은 모두 경제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3개 시·도건축사회가 공동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조연준 회장도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인 회의를 갖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길환 회장은 “공동발전을 위해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호남권 건축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3개 시·도건축사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협동조합 설립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건축사회 신임회장단, 남구청·광산구 부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강현구 회장 및 부회장 등, 구청 방문해 건축 행정 관련 개선사항 전달



광주건축사회 부회장과 수석이사 선임의 건이 지난 4월 9일 제4회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회장단을 비롯해 이사, 구협의회장 등이 광주지역 각 구청에 상견례 차 방문하여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 4월 10일에는 남구청을 방문하여 공석이 된 남구청장 대신 이정삼 부구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4월 18일에는 광산구청을 방문하여 공석이 된 광산구청장 대신 이성수 부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불합리한 건축 심의 사항을 비롯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건축 행정에 대한 회원들의 건의사항들을 전달하며 개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고, 부구청장들은 관계 부서에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앞으로 나머지 3개(동구, 서구, 북구청) 구청의 구청장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건축사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신규 건축사  
 마이다스아이티 프로그램  
 도입지원 프로젝트**

2018년 4월 부터, 선착순 2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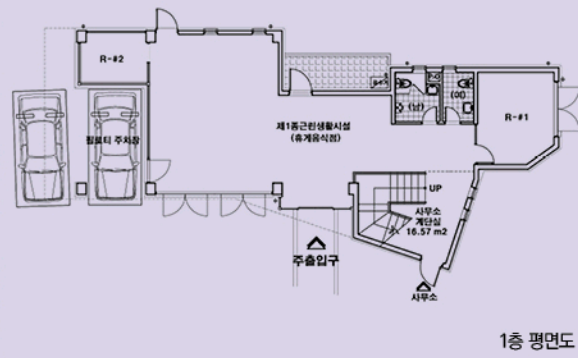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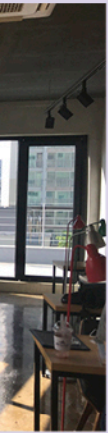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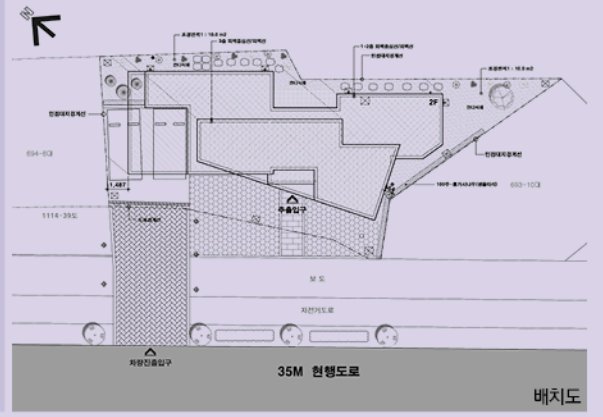
신규 건축사님,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전화문의 1577-7618  
 제품관련사항 www.midasArch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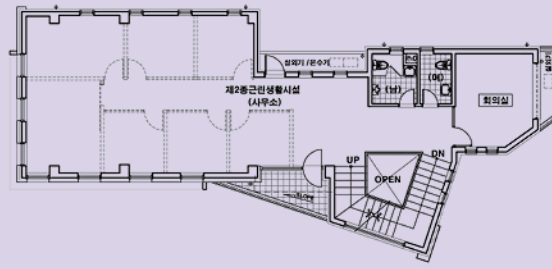
<p><b>지원대상</b></p> <p>구조기술력 향상과 사업 성장을 꿈꾸시는 예비/신규 건축사님                  (총 20개 업체 한정 지원)</p>	<p><b>지원내용</b></p> <p><b>1 추가 100만원 할인</b>                  저층건축물 구조계산 midas eGen D5 &amp; 자동 도면생성 midas Drawing D5                  기존 프로모션 + 추가 100만원 할인</p> <p><b>2 1년 무상 탑재</b>                  midas Drawing D5에 마이다스캐드1년 무상 탑재지원</p> <p><b>3 캐드 템플릿 제공</b>                  건축 라이브러리 &amp; 템플릿 무상지원</p>
<p><b>지원조건</b></p> <p>2016년 이후 건축사면허 취득자                  또는 2016년 이후 건축사사무소 창업자</p>	
<p><b>지원 프로그램</b></p> <p> </p> <p>저층건축물 구조계산 midas eGen D5                  자동 도면생성 midas Drawing D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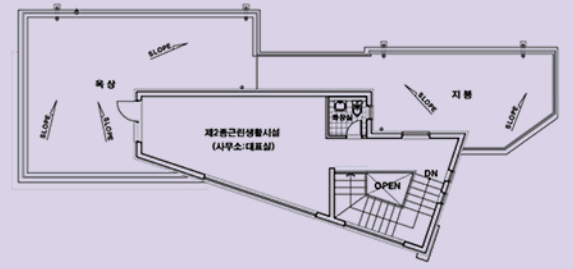
광주 북구 용봉동 694-7번지 근린생활시설은 미관지구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설측로변 오랜된 가로수, 건축물 전면공간 그리고 이형 대지의 관계 속에서 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공간감 확보와 접지층의 규정되지 않은 확장성을 중점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변 건축물의 전면공간이 또 다른 도시의 활력의 장으로써 다양한 보행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자문위원회의 개최하고 의견청취

지난 4월 16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진행,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문받아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이 지난 4월 16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현구 회장은 4월 초 취임 후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광주건축사협동조합 설립과 신규 사업 실시 등을 역대 회장들에게 보고하며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강현구 회장은 “앞으로 광주건축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경험이 풍부한 역대 회장님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겠다”고 밝혔다.

### 광주건축사회, 2018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일 나주시 부영컨트리클럽에서



2018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5월 2일 전남 나주시 부영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이지섭 회장 등 골프동호회 회원 및 참가신청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대회가 단순히 광주건축사회

원들의 단합과 우의 증진을 넘어서 지역건축문화와 우리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우승은 선택 건축사사무소 김근 건축사가 차지했다.

### 광주광역시, 광주건축사회에 규제개선 건의사항 제출 요청

전 회원들에 오는 5월 25일까지 건축 분야 불합리한 규제 의견 제출 공지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민생현장에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광주건축사회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출 요청했다.

이에 광주건축사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오는 5월 25일까지 건축 분야 불합리한 규제 애로(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관련 사항 및 제출 서식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96390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호남지역 건축사회 회원 친목 골프대회’ 열린다

오는 6월 7일 전주 상그릴라 CC에서... 5월 15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남지역 건축사회 회원 친목 골프대회’가 오는 6월 7일 전주 상그릴라 CC에서 개최된다.

3개 시도건축사회가 회원들의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증진을 위해 개최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이번 대회는 전북건축사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5월 15일까지 소속 건축사회로 신청하면 된다.

###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정훈 건축사 / 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88번길 29
- 퇴회
  - 장경민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이종순 건축사 / (주)공감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8
- 결혼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04월 21일(토)
  - 조연성 건축사 / (주)현대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04월 28일(토)
  - 최경양 건축사 / 한샘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5월 12일(토)
  - 이영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전진 / 장남 결혼 - 05월 12일(토)
  - 나현업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6월 02일(토)
- 부고
  - 윤장수 건축사 / 다산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04월 21일(토)

## 너나들이-칸타차빌라하우스

임현정 건축사 /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22, 501호  
 Tel. 061-285-8677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19-14번지 / 대지면적 : 214.00㎡ / 건축면적 : 105.00㎡ / 연면적 : 194.37㎡ / 건폐율 : 49.07%  
 용적률 : 90.83% / 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외단열토랄시스템 스타코, Q BLOCK



### 전남건축사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적극 추진 나서

지난 4월 20일 전남대에서 간담회 개최하고 하반기 교육 시행 목표로 추진 논의



전라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이 취임 후 도회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조연준 회장은 지난 4월 20일 전남대학교에서 전통건축 권위자인 전남대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와 전남도립대 한옥학과 이병하 교수,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관계 공무원, 건축역사 관계 연구원, 전남건축사회 오세웅 사무국장 등과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전남건축사회와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가 함께 한옥설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한옥설계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한옥의 보급에 기여하여 한옥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전남대에서 한옥이론과 설계, 시공 전문가 특강, 현장학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남건축사회는 향후 교육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7월과 8월 중 회원공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건축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전남 순천시, 청년 건축학도들이 그려낸 신청사 11개 작품 선정

지난 4월 27일 전국 대학생 건축설계 공모 시상식 개최



전남 순천시가 전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미래 신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한 '순천시 신청사 전국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1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모전 참가팀 및 시민, 관내 고등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4월 13일 1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별 설계 의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최종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과 유하광 학생이 제안한 'Suncheon Play Ground'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이규남 학생팀, 창원대학교 이희승 학생팀이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1개 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입선 5)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후 부대행사로 공모전 수상 대학생들과 건축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생 토크 타임을 마련해 건축학과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 광고 및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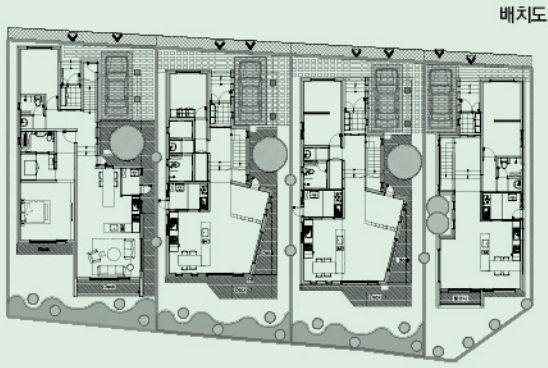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배치도

푸른 숲길과 자전거전용도로, 친근한 풍경의 운동기구와 벤치로 채워진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배치된 철도 폐선 부지 내 한 자락에 본 사이트는 위치한다.

각기 다른 꿈을 안고 사는 4세대 건축주 가족을 위한 직사각형의 길쭉한 형태의 4개의 필지로 분할되어진 채광, 통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본 대지에 “공간을 둘러싸는 자연이 있는 정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 비움의 공간을 만들어 가족을 위한 공간. 때로는 4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의 숙제였다.

후면 테크와 남동쪽 일부를 사선으로 열어 자연 바람의 따사로움. 정원이 주는 싱그러움을 큐브 블록처럼 잘 짜여진 비움의 공간에 할애하고자 하였고 그들만의 현재의 시간과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로 연계된 녹지 축 속에 높낮이가 다른 동화 속 하얀 집들이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풍요롭게 누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담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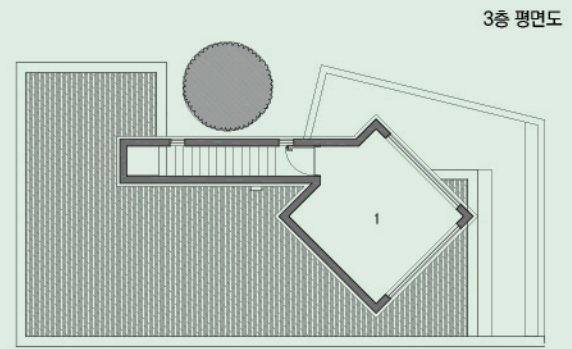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현관 / 2. 거실 / 3. 다용도실 / 4. 공용욕실 / 5. 사우나 / 6. 황토찜질방



2층 평면도

1. 거실 / 2. 안방 / 3. 파우더룸 / 4. 부부욕실 / 5. 공용욕실 / 6. 드레스룸 / 7. 스타디움 / 8. 자녀침실 / 9. 미니테크 / 10. 테크



3층 평면도

1. 무비룸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입상 작품들은 5월부터 순천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되어 그동안 미래 신청사의 모습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 전남 화순군,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 실시

지난 4월 26일부터 관내 10여 명 건축사가 12개 면 순회



전남 화순군은 지난 4월 26일부터 관내 10여 명의 건축사가 12개 면을 순회하면서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건축공무원을 대신하여 관내 건축사가 면을 순회하면서 무허가건축사 양성화 및 건축인허가 절차 안내,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 건축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건축법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 전남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시민 의견 반영해 수립키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 공청회 개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쏟아져



전남 광양시는 지난 4월 27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4층 강당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신청에 앞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토론은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명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목포대학교 조준범 교수와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한영숙 대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김동기 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 주제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시급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에 앞서 각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부문, 산

업체 부문, 물리환경 부문에 대한 쇠퇴도를 분석하고 지역의 여건을 진단하고 있다.

이날 설명한 전략계획(안)에서는 △도시의 쇠퇴 및 여건 분석 결과, △재생의 비전과 전략, △재생권역과 활성화 지역의 설정, △재정지원 사항, △추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공청회에서는 광양시 전역을 광양읍, 골약·중마·광영 등 중심지, 태인·금호, 농촌권역(옥곡·진상·진월 도시지역) 등 4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별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도 공청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전략계획(안)에 담을 계획이며 5월 중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남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상서 다듬기 워크숍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주민워크숍, 지난 4월 24일부터 4일 연속 개최

전남 순천시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구상서 다듬기 워크숍’을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17년 국토부로부터 선정된 2개 유형(중심시가지, 일반근린형)의 사업에 대해, 법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주민 등 다양한 참여 주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이 열린 4일간 사업대상지 주민, 지역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토론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구상서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에서 중심시가지형(버스터미널 일원, 300억), 일반근린형(저전동 일원, 200억)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올해 1월부터 주민공청회, 순천시의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하였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5월 중 순천시 도시재생추진단 TF, 전문가 자문,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거쳐, 6월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부터 거점 공간 매입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양경승 건축사 / 해룡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남신월길 2, 9층 901호



## 서은옥푸드 사옥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 4층 Tel. 063-278-6678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44-9 / 대지면적 : 356.00㎡ / 건축면적 : 197.74㎡ / 연면적 : 484.46㎡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AI 복합판넬, 치장벽돌

##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 김제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화재 취약계층의 주거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소화기 등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주용)는 지난 4월 19일 김제소방서(서장 강원석)를 방문해 화재 취약계층의 주거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기탁했다.

정주용 회장은 강원석 서장에게 “시민들의 안전기반 확충과 화재피해 절감에 도움이

이 됐으면 한다”고 전하며 소방시설을 기탁했다.

이에 김제소방서에서는 지역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기탁된 소방시설을 순차적으로 보급하면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줄 계획이다.

한편 김제지역건축사회는 2015년부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김제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탁해오고 있다.

##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 터와 주변부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 약 151만6000㎡ 설정,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북 전주시가 전주 구도심 100만 평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부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도심부 약 151만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조선 시대 4대문과 전주부성이 있던 전주의 천년 중심지인 역사도심지구는 풍남문과 풍패지관(객사), 현재 복원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전라감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성곽과 성문, 감영, 옛길 등이 훼손되고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무분별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지역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왔으며,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 포럼 등을 거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역사도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향후 신축되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제한된다. 또, 건축 층수는 기본 3층까지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역사문화자원 주변은 한층 강화된 건축 층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단, 도로와의 인접도와 대지면적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축 및 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과 지형도면 등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미일치 건축물대장 정비 나서 건축부서와 지적부서 협업 통해 건축물대장 169건 지번 정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건축부서(건축과)와 지적부서(민원봉사실)의 적극적인 업무협업을 통하여 토지대장 9만1천 필지와 건축물대장 3만3천 건을 약 4개월

##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8년도 6월 | 건축사실무교육 예정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전북건축사회 2018년도 6월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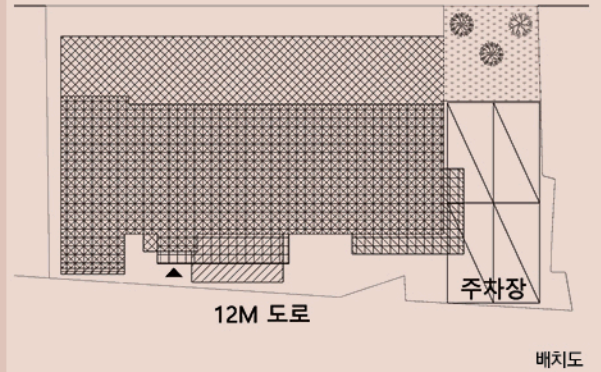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6월	19일(화) 10:00~12:00	전문	건축사진의 이해	임정의 대표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바울교회 바울센터 2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30)	2시간	20,000원
	19일(화) 13:30~15:30	전문	민법(계약법 부분)	태기정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시간	20,000원
	19일(화) 16:00~18:00	전문	민법(계약법 부분)	태기정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시간	20,000원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에서 “전북건축사회” 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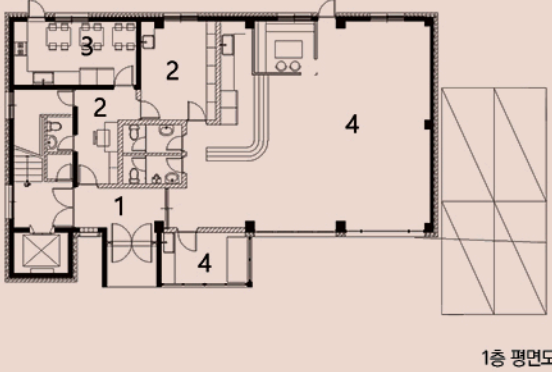
※ 전북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 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7) 기타문의사항은 전북건축사회(063-251-6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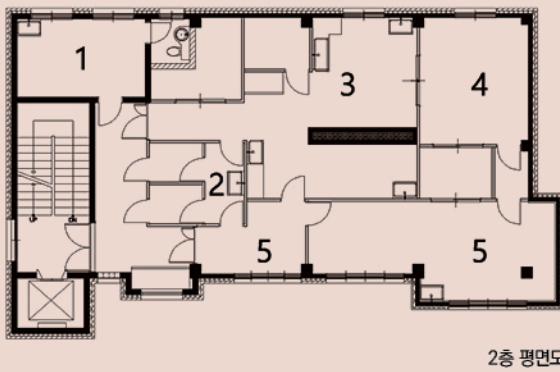
대학에서 식품조리학을 강의 중인 건축주는 제과·제빵 제조를 기본으로 하는 컨셉의 건축물 설계를 선호하였다. 이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전주시 구시가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거뿐 아니라 선호식품의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건축플랜을 구상하였다. 한적한 주변 장소이기에 외관에 치중한 스타일의 형태보다는 기능에 만족하는 평면계획에 역점을 두어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제과·제빵 제조 공간, 3층에는 건축주가 살림할 주거공간으로 구성하여 건축설계가 진행되어 가던 중에 건축주의 세련되고 화려한 의상 스타일 맵시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와 색상을 건축주의 차별화된 개성이 표현되는 건축물의 설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현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건축물은 건축주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공간과 형태로 만들어져야겠지만, 건축주의 외형을 닮은 건축물이 만들어질 줄이야 누군들 알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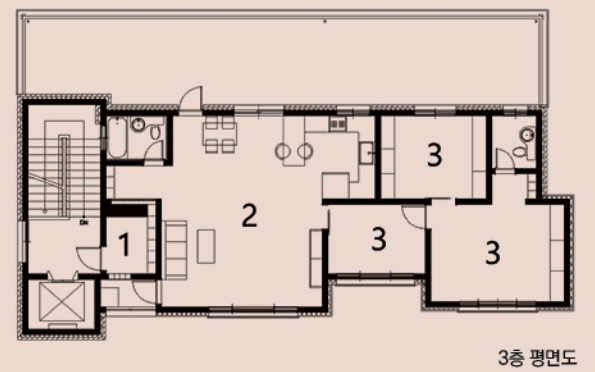
1. 홀 / 2. 사무실 / 3. 식당 / 4.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 연구실 / 2. 전실 / 3. 배합·성형실 / 4. 오븐실 / 5. 포장실



1. 현관 / 2. 제조실 / 3. 숙소



간 집중 조사하여 공공의 데이터인 건축물대장 중 정비가 가능한 169건에 대하여 관련 공부의 지번을 일치하였다고 밝혔다.

토지대장의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을 신청해야 하나 이 경우 건물현황 측량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건축부서와 지적부서의 협업을 통하여 건축주의 재정적인 부담과 별도의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일치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완산구 건축부서와 지적부서는 “앞으로 정례적인 업무공유와 상호협업을 통하여 토지대장의 분할·합병 등으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전북 정읍시, 5월부터 도시재생 창안대회(도시학교) 본격 운영

오는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6차례 교육 후 6개 팀 선정



전북 정읍시 2018 도시재생 창안대회(도시학교)가 5월 2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재생 창안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6일까지 도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동일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신청 사업비 이상의 지원을 받은 단체, 공동체에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는 응모할 수 없다.

희망자는 도시창안대회 신청서와 참여회원 명단, 사업 계획서, 공동체 활동 소개서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또는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이나 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메이플-스톤 도시협력센터가 주관하는 도시창안대회는 입교 심사와 도시학교, 사업계획 발표와 평가 등으로 추진된다. 사업기획에서 계획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강의와 1:1 코칭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입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23일부터 6차례 총 28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료 후에는 심사를 거쳐 6개 팀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비(팀당 250만 원)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063-539-5803) 또는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3-539-5815)에 문의하면 된다.

### 전북 전주시, 2018 첫마중길 도시재생뉴딜 공모대비 토론회 개최

‘전주의 첫인상’ 첫마중길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위해 전문가들과...

전북 전주시와 전주시혁신센터, LH전북지역본부는 지난 4월 1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구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2018년 첫마중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대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의 첫인상을 바꿀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서성원 전주시혁신센터 국장은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추진했던 첫마중길 전주시 중심시가지형 공모 개요와 현재 추진 중인 공모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 안건을 제시했다.

이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 계의 폭 넓은 의견과 사업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부처 연계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2017년 중심시가지형 공모 내용에 대한 검토와 2018년 핵심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거점중심 사업, 대상지의 잠재력에 대하여 전문가 12인의 지명토론을 통해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경쟁력 회복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지의 민·관의 협력과 유관기관(주민)들과 갈등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시 차원의 중·장기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사업 실행수단 제안을 듣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첫마중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은 전주역과 지난 1980년대 택지개발로 조성돼 업무·상업의 중심지로서 기능했었지만 현재 신시가지 확장으로 업무기능을 상실하고 노후숙박 시설들이 밀집되는 등 도시 경쟁력이 약화돼 재생 필요성이 높은 인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선태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함 / 전북 군산시 검다메안길 13
- **퇴회**
  - 문준영 건축사 / 동인 건축사사무소
- **변경(사무소명)**
  - 강승기 건축사 / 태평양 건축사사무소 → (주)태평양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박종수 건축사 / 테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50, 2층
- **결혼**
  - 박복렬 건축사 / (유)도성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5월 12일(토)
  - 정영철 건축사 / 미지 건축사사무소 / 자녀(딸) 결혼 - 05월 26일(토)
- **부고**
  - 이형철 건축사 / 예원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4월 09일(월)
  - 정태조 건축사 / 헤세드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4월 13일(금)
  - 신봉현 건축사 / 초록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04월 20일(금)
  - 오영철 건축사 / 신영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4월 25일(수)

## '가칭' 행복중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남악신도시(오룡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하여 2020. 9. 1. 자로 '가칭' 행복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예정부지의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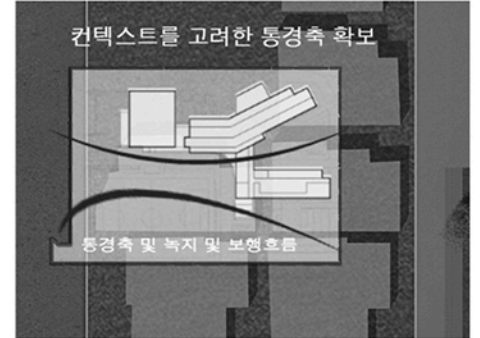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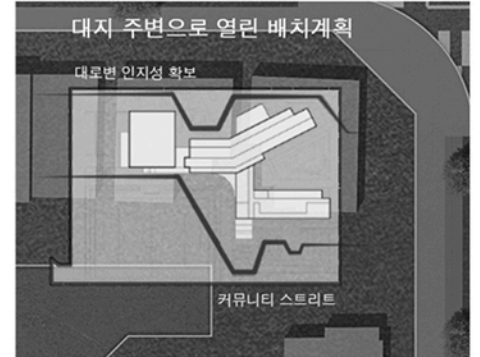
심사위원 : 전호민, 박일민, 강봉임, 이강석, 윤기병, 김준영, 이강민, 정경태, 김봉주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중 26
- 연 면 적 : 9,764.10㎡(±5% 이내)
- 대지면적 : 15,090.10㎡
-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 사 비 : 22,949,651천 원

당 선 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주)유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기타입상작 : 진 건축사사무소  
+ 유연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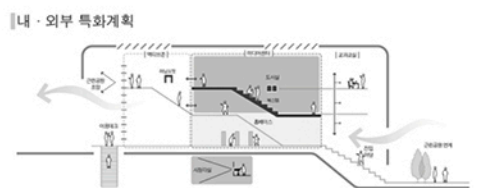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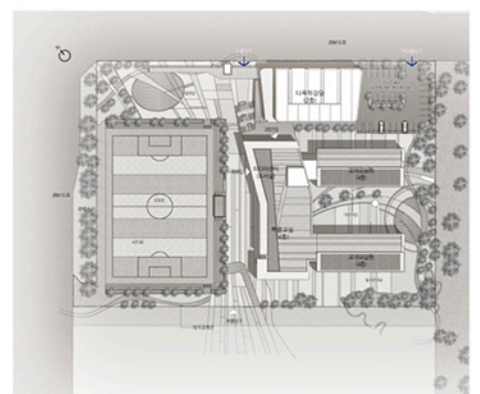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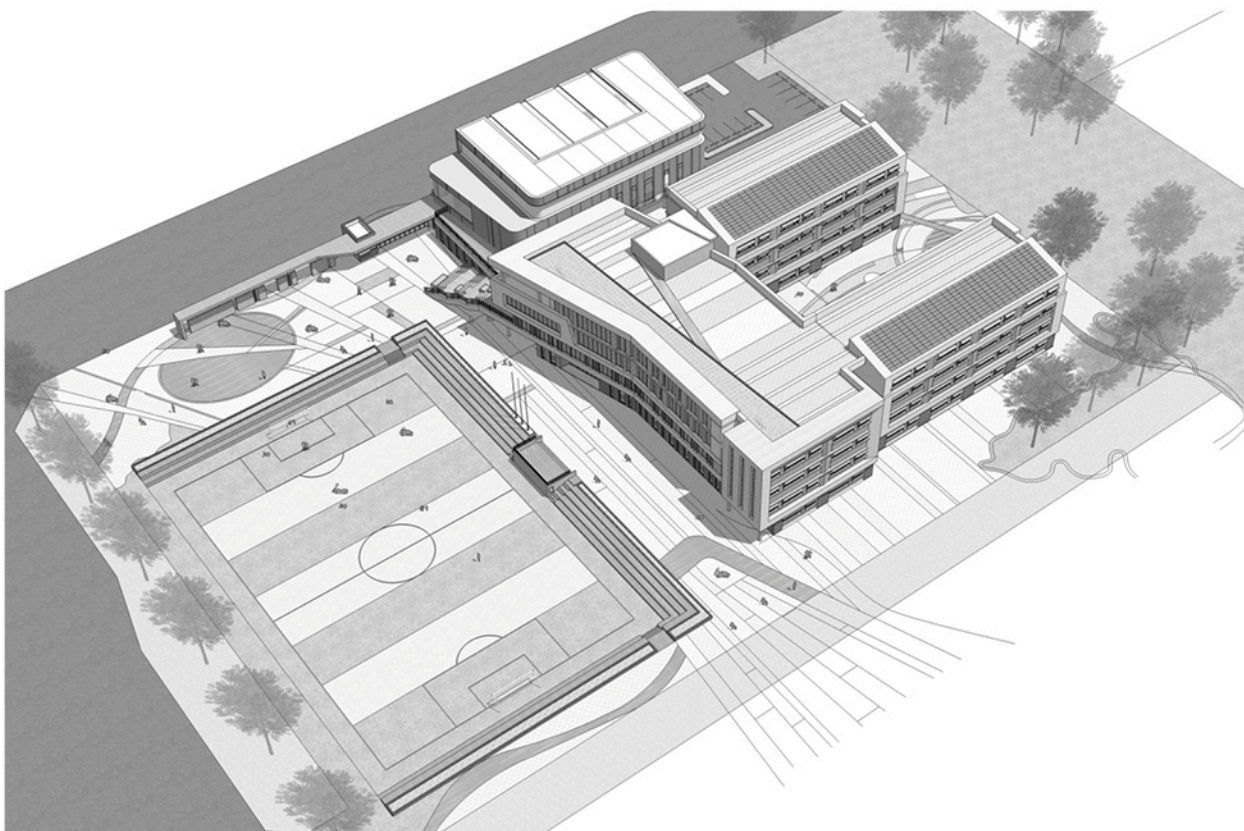
###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박재형 건축사 (주)유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기타입상작

전진호 건축사 진 건축사사무소 + 장재곤 건축사 유연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주최, 전남일보사 후원, '제2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 4월 12일, 서구 치평동 전천후게이트볼구장에서... 300명 참석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게이트볼협회(회장 송양식)가 주관하며, 전남일보사가 후원하는 '제2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4월 12일 서구 치평동 전천후게이트볼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직원 10여 명과 광주광역시게이트볼협회 송양식 회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게이트볼동호회 36개 팀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전문가단체로서 활동하는 우리 단체가 사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여, 건축사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동호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고 밝히며,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노력하는 우리 건축사들에게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축사회도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공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게이트볼협회 송양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강현구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동호인들도 광주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식순으로 공정 경기를 다짐하는 선수대표 선서와 초청 내외빈 시구로 기념식을 마무리 지었으며, 본격적으로 경기가 종일 진행됐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실천 봉사 활동'과 '따뜻한 나눔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회사 중인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선수대표 선서식



제1회 우승기 반환식



환영사 중인 광주광역시게이트볼협회 송양식 회장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참석자들의 대회기념 시타식



대회 참가기념 단체사진



송양식 회장이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직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상식 영광의 순간들... 이번 제2회 대회 우승은 서구지역 금타팀에게 돌아갔다

### 커지고 당당해지고 든든해지고 신협에 가면, 금융생활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대출 서비스

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사업장 구입자금대출,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타행 포함) 신용대출까지

아파트담보  
대출  
연 3.55%

부동산담보  
대출  
연 3.75%

신용대출  
연 5.89%~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공모 진행**

일반공모부문과 아이디어 공모부문 2개 부문으로... 전국공모 수준의 상금도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박홍근)가 주최 및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제1회 광주건축대전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의 한 부문으로 진행되었던 건축공모전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건축전문공모전으로 독립되면서, 건축전공학생과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부문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공모전은 '오늘의 시대와 장소\_적시적지(適時適地)'라는 주제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각각 6월 5일, 7월 4일까지 작품을 접수해야 하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자유롭게 건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품접수는 7월 4일까지이다. 심사위원장과 특별강연자로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가 초빙되었고, 작품전시회는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예총회관 백련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모 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건축대전 홈페이지(www.gwangjuproject.kr)를 참조하면 된다.

▶ 시상내역

일반공모전		아이디어공모전	
대상 1작	광주광역시장상 상금 700만 원	대상 1작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1작	광주전남건축가회장상 상금 300만 원	금상 1작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우수상 3작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은상 3작	상장 및 상금 10만 원
장려상 5작	상장 및 기념품	동상 5작	상장 및 기념품
입선 다수	상장	입선 다수	상장

※ 문의 :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대전 추진위원회 Tel. 062-530-0644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응모접수 시작**

준공건축물 6월 1일까지 인터넷(kaa.kira.or.kr)을 통해 참가신청 접수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축상인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올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작품을 찾는다. 지난 1992년 제정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신인 건축가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 사이 국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대상이며 오는 6월 1일까지 인터넷(kaa.kira.or.kr)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통일-공유, 공존'을 주제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의 인터넷 참가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25일이며, 이후 작품 접수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하게 된다.

〈응모 부문 및 자격〉

◇준공건축물 부문=▲응모작품 : 2016년 5월 1일 ~ 2018년 5월 1일 국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설계자·시공자·건축주  
※ 공동설계의 경우 공동설계자(외국인 포함)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계획건축물 부문=▲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응모자격 : 건축·도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응모방법〉

◇준공건축물 부문=▲참가신청 : 6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인터넷(kaa.kira.or.kr) 신청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6월 14일(목) ~ 15일(금)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계획건축물 부문=▲작품주제 : 통일-공유, 공존 ▲1팀 3인 이내, 1인당 1 작품으로 제한 ▲참가신청 : 5월 15일(화) ~ 25일(금) 인터넷(kaa.kira.or.kr) 신청 ▲1차 작품 접수 : 5월 30일(수) ~ 31일(목) 방문 및 우편접수

※ 작품내용 및 시상내용 등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2018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시험장소 발표**

오는 5월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와 서울 송파구 잠실고에서

오는 5월 20일 개최되는 '2018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예비시험 시험장소를 1 시험장에 서울 마포구 홍익대, 2 시험장에 서울 송파구 잠실고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간 연속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는 응시번호별 지정된 고사장에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과 함께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해 시험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8년도 신임 건축사편집위원 선임**

광주지역 건축사 1인과 전남지역 건축사 2인, 위촉식은 5월 말 또는 6월 중 예정



정영법 신임 광주편집위원  
로운 건축사사무소



박종혁 신임 전남편집위원  
바로 건축사사무소



설혜순 신임 전남편집위원  
미건 건축사사무소

본지 건축문화사랑 2018년도 편집위원회에 광주지역 건축사 1인과 전남지역 건축사 2인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지난 4월 11일자로 임명된 강동영 편집인 체제에서 새롭게 구성된 편집위원회에 공석이 된 광주지역 부편집인으로 박주현 편집위원을 선임하고,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광주 로운 건축사사무소 정영법 건축사를 광주지역 편집위원에, 전남 광양 바로 건축사사무소 박종혁 건축사와 전남 목포 미건 건축사사무소 설혜순 건축사를 전남지역 편집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된 정명환 직전 편집인과 백재봉 전남 편집위원에 대해 각각 자문위원과 논설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5월 말 또는 6월 중에 새롭게 선임된 편집위원과 학생 기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8 제14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지난 4월 27일과 28일 울산시에서... 전남과 전북 8강 진출, 우승은 경기청이

지난 4월 27일과 28일 1박 2일간 울산광역시 문수국제양궁장과 월드컵보조구장에서 '2018 제14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건축사회와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축구동호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건축사축구동호회 23개 팀 600여 명의 건축사가 참석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와 전남, 전북팀이 참여하였는데 광주팀은 2승 1무 1패를 기록하는 선전을 펼쳤으나 골득실차로 아쉽게 예선에 탈락하였고, 전남과 전북팀은 8강에 진출하는 데에 그쳤다. 최종우승은 경기청과 대전이 승부차기 끝에 8대7로 경기청이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3승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이어 하반기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는 송파건축사축구동호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 주관으로 호남지역건축사 축구교류전 열려**

지난 4월 7일 전북 전주 고덕생활축구장에서... 3개 시도 회원 70여 명 참석



지난 4월 7일 전북 전주시 고덕생활축구장에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 회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 주관으로 호남지역건축사 축구교류전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3개 시도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축구를 통해 기량을 겨루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호남지역 건축문화 발전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3개 시도 건축사 축구동호회에서는 동호회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에서 \_ 마흔두 번째

행복

주변에 결혼 소식이 많다. 지인들의 자녀 결혼이다. 모두 축하를 한다. 행복의 새 출발을 기원한다.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도 많다. 주로 지인들 부모님들이다. 위로를 위해 조문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세상과 이별을 한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생을 살았고, 마무리했을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가 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란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갈 집, 생각할 사람, 좋아하는 노래... 화려하건 허름하건, 크건 작건, 많건 적건 간에 우린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다수가 불평불만이다. 행복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다닌다. 남 탓을 한다. 너무 큰 데서 행복을 찾고, 아주 높는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은 아닐까?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잊고 살듯.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듯.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많이 있어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행복은 바이러스라고 한다. 내가 행복한 상태라면 내 주변에도 전염된다.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나의 행복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감사함에 있다. 밤에 되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힘들 때 가족과 친구와 동료 등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외로워도 콧노래 부를 수 있도록 내 주변에 감사하자. 혹시 없다면 잠시 멈춰보자. 멈추고, 되돌아보고, 주위를 한발 떨어져 보자. 우린 바쁘다는 핑계로 못 느끼기 뿐이지 감사할 것이 참 많다.

오늘도 감사한다. 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잠 잘 수 있음에, 할 일이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동료가 있음에, 공기와 물이 있음에...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행복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선물임을 다시 깨닫는다.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의원발의] [20132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8. 4. 27.

▶ 주요 내용

-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 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다.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의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 라.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 계약의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 [법령][의원발의] [20134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8. 5. 3.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지난해 10월 용인 물류센터 흠막이 붕괴사고 역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흠막이 해체 과정에서 시공사는 안전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고 감리자는 흠막이 해체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토목 감리원마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음.
- 건설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실시공의 경우, 많은 사례에서 건설 과정상 제대로 된 공사 감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사시공자와 함께 공사감리자도 경찰에 고발조치 되고 있음.
- 공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하여 건축물의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 4. 5 ~ 2018. 5. 18)

▶ 주요 내용

-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 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 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주)마이더스아이티 300,000원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_ 임준영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엮음 / 오래된미래 / 2005. 03. 26

시 한 편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던 때가 있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외우고 다니던 때도 있었다. 시는 그 시대의 감정을 대변했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 편의 시는 곁에 두고 오랫동안 봐야 아름답다. 하지만 언어로 소비해버리는 현대에는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듯 보인다. 시는 단지 문학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이 책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의 저자이며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을 소개해 엮은 시집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류시화 시인의 시에의 초대이다.

치유와 깨달음을 주제로 이 책 안에 모여 있는 시들은 우리에게 삶에서의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준다. 내가 시를 직접 쓴다는 것과 누군가가 쓴 시를 본다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시집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

시의 공간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생각의 문을 잠그고 시를 써보는 시간을 이 책과 함께 가져본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철부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두엄자리 곳곳에서  
정신 못 차리게  
돌아나는 새싹 같이  
자유를 찾아 나서고 싶어지는 것이  
신선한 공기가 그리운 것이  
아무래도 바람이라도 나려는 것인지

결은질 한 번도 못해보고  
힘 없이 달려온 삶이  
양지도 없고  
체온도 없는  
어둠을 감옥 속도 아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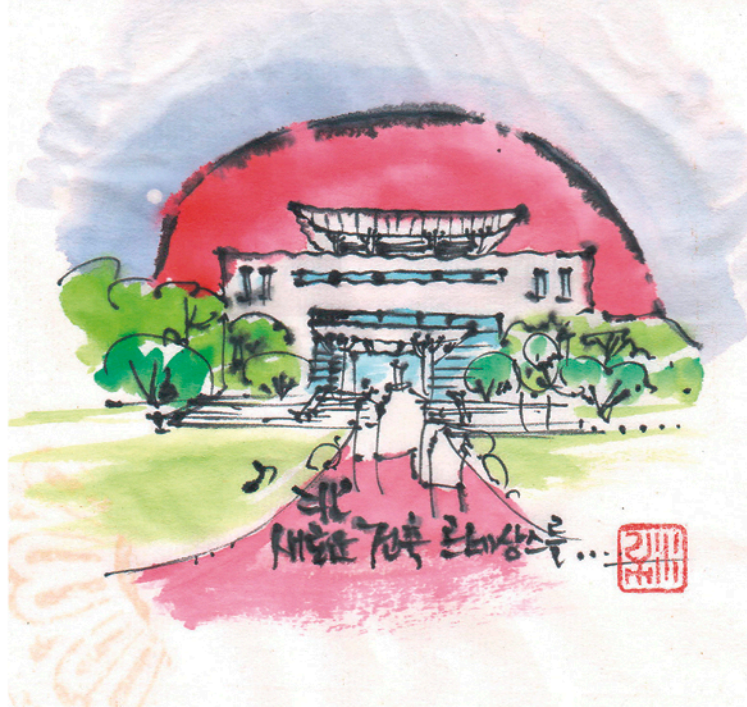
요즘 들어 갑자기  
가슴속에 울렁대는 것들이 수상하다  
파랗게 움터오는 갈망으로  
파리를 틀기 시작한 그리움이

무서운 정열로  
애절한 추억으로  
첫사랑의 향수내음 만큼이나  
진하게 내려앉는다

주체할 수 없는 갈망으로  
아내도 자식들도  
아랑곳없이  
가슴속을 두 방망이질 하는 것이  
못할 짓만은 아닌 듯도 한 것이

머리속은 개운하지 않아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세상사는 느낌 \_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꿈이라는 게\_(현실과 이상)

우리는 누구나 하나쯤은 어떤 희망이나 꿈을 안고 살아간다. 어렸을 적에 다들 '장래희망, 나의 꿈'과 같은 주제로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내게 장래희망은 그저 먼 이야기만 같았고 결국엔 찾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그렇게 한해 두 해 지나 20살이 지난 지금 꿈과 희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생겼다. 꼭 꿈이라는 게 거창할 필요가 있는 걸까? 어려울 필요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고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발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아닐까 싶다. 물론 현실과 이상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차이... 그 괴리...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같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졸업을 앞둔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득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또다시 나아간다. 그러다 지치게 되면 조금 쉬어도 좋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긴 여행을 준비해 보자.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http://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